

50+ 세대, 부모·자식에 치여 사는 '깁세대'는 끝났다

인생 2라운드, '나'로 다시 태어나는 '리본'이 대세

(Re-born)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프키워드 조사

졸혼 등 新문화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가족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서 벗어나 여성이 남성보다 '졸혼·이혼'에 개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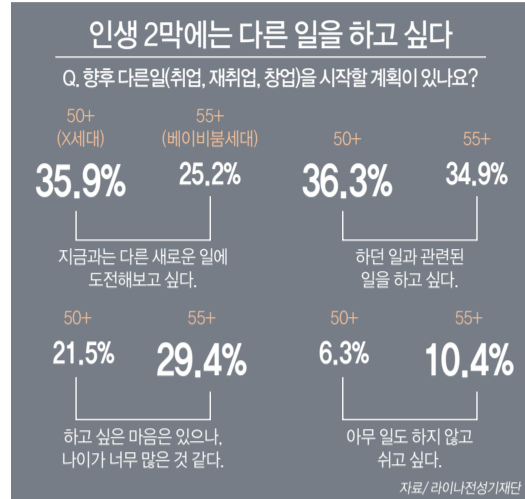
지난해 8월 본격적인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 14%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신(新)중년'이라 불리는 50+ 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50+ 세대는 중·장년층 혹은 예비 노인의 일부로 여겨지던 이전 세대와 달리 졸혼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이에 19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50+ 세대의 라이프 키워드'를 조사·발표했다. 만 50세부터 65세 대한민국 남녀 총 1070명을 대상으로 관계, 정보, 사회활동, 여가, 소비 등 5가지 라이프 영역을 도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검증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50+ 세대의 라이프 키워드는 '리본(Re-born)'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그 동안 간과했던 나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50+ 대표 라이프 키워드 '리본'

설문 결과 50+ 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향후 다른 일을 시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대별로 분석하면 같은 50+면서도 55세를 기준으로 세대 차이가 두드러졌다. 55세 미만은 X세대, 이상은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답한 50+ 세대는 35.9%로 베이비붐세대(25.2%)보다 10.7%포인트나 답변 비율이 높았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55세 미만 X세대는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해 자녀 양육, 손주 양육 등에서 베이비붐세대와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난다"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통적 가치관인 의무를 중시하기보다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X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생 2라운드를 위한 자격증으로는 조리사와 외국어 관련 자격증을 가장 선호했다. '기회가 된다면 취직하고 싶은 자격증은?(중복 응답)'이라는 질문에 조리사 자격증(34.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뒤로 외국어 관련 자격증(34.1%), 공인중개사(32.0%), 바리스타 자격증(29.7%), 컴퓨터 관련 자격증(27.3%), 드론 기사 자격증(26.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장비기사, 전기기사, 대형면허, 순해설

여성이 남성보다 졸혼에 개방적이다

Q. 친구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료/ 라이나전성기재단



가, 여행전문가 등 기타 응답까지 포함하면 50+ 세대는 대부분 새로운 직업을 갖는 수단으로 자격증을 원했다.

◆ '나 자신'이 가장 중요...50+는 '깁세대'

또한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는 질문에는 1순위로 '나 자신(53.9%)'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나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중년 세대를 흔히 부모, 자식 사이에 '깁세대'로 보는데 오히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깁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각 순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을 보면 남성은 2순위로 '배우자(21.8%)'를 꼽은 반면 여성은 '자녀(27.0%)'를 꼽았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가 '반려동물'보다 낮은 순위로 조사됐다. '며느리와 사위'를 꼽은 응답수도 56명에 불과해 사실상 50+ 세대에게 며느리와 사위 위주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0+ 세대에게서 새로운 결혼생활 방식으로 등장한 '졸혼'에 동의하는 정도는 고르게 나타났다.

'친구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생활을 즐기도록 해봐'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혼이 쉽나? 좀 더 참고 살아봐(25.2%)', '졸혼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20.9%)',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도 될 때야(20.9%)'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성별로 분석하면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다. '참고 살아'는 응답은 남성(31.8%)이 여성(14.9%)보다 훨씬 많았다. '졸혼하리'는 응답은 여성(28.2%)이 남성(16.2%)보다 많았다. '이혼하리'는 응답 역시 여성(26.8%)이 남성(17.1%)보다 많았다.

라이나전성기재단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졸혼과 이혼에 훨씬 개방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남성은 같이 사는 방향으로, 여성은 졸혼이나 이혼을 권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비리전력 이사 권한 축소” 교육부, 이사 추천권 제한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 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 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

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새 시행령은 사분위가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중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joker@

각종 비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안기로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결과

16가지 문제점 수정요구 이행 안해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비리가 적발된 국내 유일 미술전문학교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관악구의 서울미술고가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미술고의 평가 결과는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

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이후 계속 재지정을 받으며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 2월로 자율학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학교가 재지정을 신청해 이뤄졌다.

시 교육청은 오는 29일 청문을 시행해 학교 측 의견을 듣고 7월 중순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율학교로 재지정받지 못하면 서울미술고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는 특수목적고 가 아닌데도 그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왔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40%가 서울 외 지역 학생이다.

수업료·입학금도 학교장 자율로 정해왔다. 이 학교의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종합 감사를 벌여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과 방과 후 학교 관련 회계 부당 처리 등 16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집행 예산 회수 등을 요구했다.

서울미술고는 시 교육청 요구사항의 일부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두산인프라코어-한양대 스마트건설 관제시스템 개발 MOU

두산인프라코어가 19일 한양대학교와 '스마트건설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스마트건설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 가운데 하나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건설'은 ▲건설 및 토목 현장의 환경과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공사계획 수립 ▲중앙 관제

센터에서 무인 건설기계 운용 및 작업 전반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형 건설 플랫폼을 의미한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한양대는 건설기계 및 자재 운용 계획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작업현장의 3차원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2019년까지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경단녀 '시간선택제 영업직' 특별채용

하루 4~6시간 선택 근무 가능

LG유플러스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선택 근무 가능한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를 특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력단절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영업전문인재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FM(매장 관리자)로 근무하게 된다. FM은 통신 서비스의

컨설팅 및 판매,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는 가사 활동 시간을 고려해 9가지 타입 중에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많은 여성들이 생활 패턴에 따라 가사일을 병행하며, 주어진 업무 시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시간선택제로 근무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로 근무 중인 천세나 FM의 모습. / LG유플러스

중인 여성 인재들의 높은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토대로 이번 채용을 추가로 기획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